



산업통상자원부

MINISTRY OF TRADE, INDUSTRY & ENERGY

보도참고자료

희망의 새시대

http://www.motie.go.kr

2015년 9월 10일(목)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(인터넷, 방송, 통신은 9.10(목) 오전 6시 이후 보도 가능)

< 자료 문의 >

기획재정담당관실	과장 최남호, 사무관 양정화(☎ 044-203-5520, 5516)	총괄
산업기술정책과	과장 천영길, 사무관 이원규(☎ 044-203-4510, 4513)	R&D
에너지자원정책과	과장 주영준, 사무관 김태권(☎ 044-203-5120, 5128)	에특회계
전력산업과	과장 이원주, 사무관 정기훈(☎ 044-203-5240, 5250)	전력기금
지역경제총괄과	과장 임기성, 사무관 김상곤(☎ 044-203-4410, 4414)	지특회계
입지총괄과	과장 박영삼, 사무관 이중엽(☎ 044-203-4430, 4456)	산단환경개선
기업협력과	팀장 이규봉, 주무관 임승윤(☎ 044-203-4239, 4238)	스마트공장
에너지신산업진흥과	과장 이귀현, 사무관 김기열(☎ 044-203-5390, 5391)	에너지신산업

산업부, 내년도 예산안

수출활력 제고와 신산업 창출 지원에 중점 투자

- ①수출 확대, ②제조업 혁신 3.0, ③에너지 신산업 등 -

□ 산업통상자원부는 어려운 재정여건으로 '16년 예산안 규모가 감소하였으나, 경제혁신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중소·중견기업 수출 촉진, 제조업 혁신 3.0, 에너지 신산업에 역점을 두어 편성하였음.

< 수출활력 제고 > ('15) 2,956억원 → ('16년) 3,126억원

○ 인도·중동·중남미 등 신흥시장, 한류 확산지역 등 수출 유망 시장에 대한 진출 지원을 확대할 예정임(478억→526억).

* 인도 한국상품전 개최, 글로벌기업 수요발굴·연계 및 벤더등록 등 글로벌 공급망 참여지원을 주요 신흥국 중심으로 대폭 확대

○ 주요국과의 FTA 네트워크와 경제외교를 활용하여 우리 기업의 수출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중소기업의 FTA 활용을 확대.

- 아울러, 추경으로 시작한 경제외교 연계 수출 마케팅과 온라인 특별할인전을 내년도 본예산으로 신규 편성함.

* FTA 활용에 대한 현장컨설팅, 찾아가는 FTA 서비스 등 확대 지원(103→135억)

* 해외순방·정상방한 연계 1:1 상담회(35억, 신규), 온라인 특별할인전(8억, 신규) 등

< 제조업 혁신 3.0 > ('15) 3,185억원 → ('16년) 3,835억원

○ 제조업과 IT 융합을 통해 제조업 전반의 근본적 혁신도 가속화하여 생산성 제고와 수출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함.

○ IT·로봇 등을 활용하여 제조현장에 적합한 스마트공장* 보급을 확대하고, 스마트 생산방식 고도화를 위한 기술개발 투자도 강화할 계획임.

* ICT 융합 스마트공장 보급·확산(40→112억)

** 스마트공장 고도화 기술개발(50→99.5억)

○ 아울러, 노후 산업단지를 창의와 혁신의 공간, 안전한 공간으로 재창조하기 위한 산단환경개선 투자도 대폭 확대하겠음(375→690억).

* 산단환경개선펀드(270→600억), 산단혁신지원센터(40→70억), 국가산단 지하매설배관통합관리체계(20억, 신규)

< 에너지 신산업 > ('15) 770억원 → ('16년) 1,697억원

○ 기후변화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여 온실가스를 저감하면서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에너지 신산업 투자도 대폭 확대함.

○ 스마트그리드 등을 활용한 에너지 신산업 모델을 실생활에서 구현하는 '스마트그리드 확산사업'을 신규 추진하고(314억, 신규)

※ '16~'18년간 총사업비 3,722억원(국비 660, 민간 2,866, 지자체 196)

* 지능형 전력소비 효율화/전력공급 효율화/전력판매 신산업/통합관리센터 구축

○ 에너지신산업 기반구축과 금융지원사업 등을 신설하여 친환경 에너지 자립섬, 전기자동차 등 투자기업에 자금을 지원할 계획임.

* 에너지신산업 기반구축(87.5억, 신규) 에너지신산업 금융지원사업(융자)(500억, 신규), 지역에너지신산업활성화지원(67.5억, 신규)

□ 산업부 전체 예산안 규모는 총 7조 4,499억원으로 전년 대비 6.9% 감소하였으나, 완료사업 및 자연감소사업*, 금년 추경 편성에 따른 先반영**, 지출 효율화***에 따른 것임. 이를 감안하면 실제 예산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평가.

* 광역거점기관지원사업(일부) 등 총 2,264억원 감소

** 무역보험기금출연과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지원사업에 추경으로 2,074억원 기 편성

*** 해외자원개발(융자) 사업은 국회·감사원 등의 지적사항 등을 보완하여 제도개선 방안 마련 후 추진할 예정으로 '16년 예산안에는 미반영(1,438억원 순감)

참고 1 산업부 2016년 예산안 주요 특징

① 무역·통상 분야

① FTA의 전략적 활용기반 마련으로 더 큰 글로벌 시장 진출 지원

- 중소기업의 FTA 활용률 제고를 위해 FTA 미활용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컨설팅, FTA 전문가 파견 등 실시

* 통상협정국내대책추진지원 : (15) 102.9억 → (16안) 134.8억

※ 중소기업 수출지원을 위한 무역보험기금 출연은 금년 추경시 추가로 750억원을 지원하였으므로, 이를 감안하여 전년 대비 300억원을 감액하여 400억원 편성

- 세계 경기회복 둔화 등 국제통상환경 변화에 따라 증가 추세인 통상분쟁에 선제적으로 대응

* 통상분쟁대응 : (15) 10억 → (16안) 20억

- 아울러, 무역기술장벽(TBT)이 점차 확산되고 다변화됨에 따라 해외 기술규제에 대한 수출기업의 애로해소 지원도 확대

* 무역기술장벽대응지원 : (15) 20억 → (16안) 40.6억

② 주요국과의 통상협력 강화로 경제통상 규범 수립시 국익 극대화

- 우리기업의 신시장 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동남아, 중남미 등 신흥 개도국과의 협력을 강화

* 양자산업협력 : (15) 71.2억 → (16안) 73.6억

* 산업통상협력개발지원사업(ODA) : (15) 80.7억 → (16안) 87.9억

③ FTA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기 체결 FTA 플랫폼도 공고화

- Mega-FTA(RCEP, 한중일FTA 등) 대응, 기체결 FTA(아세안-칠레·인도 등) 개선, 신흥국(중미, 에콰도르 등) 중심의 양자 FTA도 착실히 추진

* 자유무역협정체결 및 후속조치 : (15) 59.8억 → (16안) 65.7억

* 다자통상협상추진 및 글로벌경제협력 강화 : (15) 9.6억 → (16안) 8억

② 산업 분야

① 제조업 전반의 근본적 혁신을 가속화하여 대도약의 기틀을 마련

- 제조공정과 IT를 융합한 스마트공장을 본격 보급·확산하여 제조업의 생산성 향상과 수출 경쟁력 제고에도 기여

* ICT융합 스마트공장 보급·확산 : (15) 40억(추경후 80억) → (16안) 112억

* 스마트공장 고도화 기술개발 : (15) 50억 → (16안) 99.5억

- 노후 산단을 일하기 좋은 창의와 혁신의 공간으로 재창조하여 젊은이가 일하고 싶은 고부가가치 생산의 중심지로 전환

* 산업단지환경조성 : (15) 375억 → (16안) 690억

- 대학·기업연구소와 산단을 공간적으로 연계하여 인력양성, 교육, 연구개발, 고용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

* 산학융합지구조성 : (15) 230억 → (16안) 250억

- 제조업과 소프트파워*의 융합을 촉진하여 '공장없는 제조기업' 육성 등 중소기업의 고부가가치화 실현도 촉진

* 제조업 소프트파워강화 지원사업 : (15) 10억 → (16안) 20억

※ 지식자본 중 제품 부가가치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창출하는 무형의 생산요소인 기획·설계(디자인, 엔지니어링, 임베디드 SW 등)

② 동반성장 기반 구축을 통해 중소기업의 성장사다리 활용

- 동반성장을 위한 개방형 플랫폼 구축을 지원, 대·중소기업간 성과 공유제 성공사례 확산

* 대·중소기업 동반성장 인프라 구축 : (15) 39.5억 → (16안) 41억

③ R&D 사업구조 개편으로 예산운영과 사업관리의 효율성 제고

- 산업분야, 사업유형, 책임부서가 명확하게 과목구조를 개편하여 산업분야별, 사업유형별 성과분석과 투자전략 수립 강화

※ 산업분류에 따라 단위사업 개편하고(22개→18개), 사업유형을 구분하여 세부 사업수 축소(79개→53개)

④ 미래 먹거리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여 성장잠재력 확충

- 미래 신성장동력 발굴, 주력산업의 고부가가치화도 계속 지원
 - * 소재부품기술개발 : (15) 2,862.9억 → (16안) 2,890.7억
 - * 산업소재핵심기술개발 : (15) 1,168억 → (16안) 1,214.3억
 - * 창의·시스템·소재부품산업 미래성장동력 : (15) 487.8억 → (16안) 523억
- 여성R&D 인력에 대한 경력단절 예방, 복귀지원을 통해 산업현장의 여성R&D 인력의 고용 확대 도모
 - * 산업현장 여성R&D인력참여 확산기반구축 : (15) 30억 → (16안) 34억
- 기술 사업화도 지속 지원하여 신기술의 시장진출을 촉진하고,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술표준 인프라도 확충
 - * 사업화연계 기술개발 : (15) 421.9억 → (16안) 432.7억
 - * 개도국 표준체계 보급지원(ODA) : (15) 8.9억 → (16안) 11.2억
 - * 국가표준 기술개발 및 보급 : (15) 291.5억 → (16안) 301억

⑤ 지역 일자리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투자 강화

- 경제협력권 내 17개 협력산업을 선정하여 지역기업에게 기술개발과 기업지원 서비스를 병행 지원
 - * 경제협력권산업육성(R&D+비R&D) : (15) 1,690.7억 → (16안) 1,890.6억

3 에너지 분야

① 에너지 신산업 육성을 통해 기후변화 위기에 선제적 대응

- 에너지 신산업은 아직 초기 단계로 글로벌 시장을 조기 선점하기 위한 정부의 마중물 투자를 통해 자생력을 키울 필요
 - * 스마트그리드 확산사업(신규, 예타 통과) : (16안) 313.9억
 - * 에너지신산업 기반구축(신규) : (16안) 87.5억
 - * 에너지신산업 금융지원사업(융자, 신규) : (16안) 500억
- 또한, 지역별로 특화된 에너지 생태계를 반영한 에너지 신산업 확산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상생발전 도모
 - * 지역에너지절약(지역에너지신산업활성화지원, 신규내역) : (16안) 67.5억

② 저탄소·친환경 에너지의 공급체계 구축도 지속 확대


- 주택, 건물, 지역 등에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지속 지원
 - *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 : (15) 983.6억 → (16안) 1,009.5억
 - *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(융자) : (15) 1,150억 → (16안) 1,000억
- 에너지절약전문기업(ESCO) 육성도 지속 지원
 - * 에너지절약전문기업육성 : (15) 211.6억 → (16안) 193.1억
 - * 에너지절약시설설치(융자) : (15) 5,000억 → (16안) 5,000억

③ 에너지 안전사고의 선제적 예방·관리를 위한 투자 지속

- 가스 유통구조와 노후 가스시설을 개선하고, 가스사고에 취약한 서민층의 시설개선 사업도 계속 지원
 - * 가스안전관리(융자) : (15) 209억 → (16안) 209억

④ 시장시스템 활용, 사업 재검토를 통해 지출 효율화

- 전력 수요관리를 시장 기반으로 확대 전환하고, 해외자원개발(융자)은 국회·감사원의 지적사항 등을 보완, 제도개선 후 추진('16 예산 미반영)
 - * 비상수급조절 : (15) 200억 → (16안) 30억

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	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담당관실 양정화 사무관(☎ 044-203-5516) 등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	(※ 1페이지 자료문의란 참조)

참고 2 스마트그리드 확산사업 개요('16년 신규사업)

□ 추진 전략

목표	에너지신산업 육성을 위한 스마트그리드 생태계 구축
추진 방향	전국 스마트그리드 거점 구축 성과 창출을 위한 기반 조성

민간 중심의 新사업모델 개발·보급	
사업내용	▶ 전국 13개 지역을 중심으로 확산사업 추진 ▶ '16년~'18년(총 3년)간 5,668억원 투자
성과목표	▶ 일자리 창출 : 2천명 (누적) ▶ CO ₂ 배출 감축 : 연간 158,725톤

□ 사업 기간 : 2016~2018년(구축·운영: 3년), 2019~2025년(민간운영: 7년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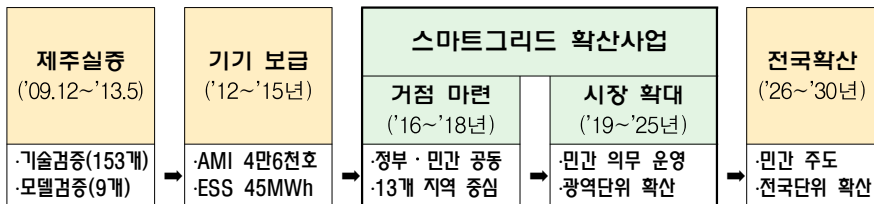
□ 사업 예산 : 총 5,668억원 (국비 660억원, '16~'18)

○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에 따라 당초 계획 대비 축소된 사업을 민간의 추가 투자*, 기존 인프라 연계 등으로 보완하여 사업 규모 확대

* 한전(600억원), SKT(1,104억원), LS산전(192억원), 집코(50억원)

⇒ 총 사업비가 3,722억원에서 5,668억원으로 증가

□ 사업 근거 : 지능형전력망법 제18조, 제1차 지능형전력망 기본계획('12년)



참고 3 에너지신산업 금융지원 사업 개요('16년 신규사업)

□ 추진배경

- 초기 위험 부담이 큰 에너지신산업의 특성 상, 민간의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마중물 역할이 필요
 - 특히, 친환경 에너지자립섬 조성사업 등 대규모 프로젝트 방식의 사업에 대해 초기 일부 용자를 통해 투자리스크 완화
- 유사한 분야에서 운영 중인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, 에너지절약시설 금융지원 사업은 융복합형 신산업 모델에 대한 자금지원 곤란
 - * (사례) 제로에너지빌딩의 경우 Active 설비는 신재생분야, Passive 설비는 절약시설로 각각 지원받아야 함

□ 주요내용

- (운영) 에너지신산업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에게 시설 투자 시 투자비의 일부 및 운영자금을 장기 저리로 용자 지원
 - * 기존의 정부금융지원 전산시스템을 보유한 에너지공단에서 집행

□ 소요예산 : 연간 500억원

- (친환경 에너지자립섬) 발전설비 구축·운영비용 350억원
 - * 울릉도 에너지자립섬 프로젝트의 경우, 총 투자비용이 3,100억원 소요 예상되고, 올해 추가로 선정된 5개 도서도 투자계획 수립 중
- (전기차) 충전설비, 대여설비 등 구축비용 100억원
 - * '16년 중소중견기업 투자의향금액(534억원)의 약 19% 지원 = 100억원
- (기타 신산업) ESS 구축, 온실가스 감축 기술개발 기업 등 50억원